



내년 F1 개최결정 시한 한달 앞 전남도-FOM 치열한 신경전

〈F1대회 주관사〉

지난해 위약금 4300만 달러
조직위, 협상하며 소송 대비

내년 F1대회 신용장 개설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F1 대회조직위원회와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간의 '위약금 협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다. F1조직위는 FOM이 마지막 대회인 2016년 F1대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협상 지속 또는 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역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F1대회를 중단한 뒤 FOM과 지난 2월 말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상호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고,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의견을 담은 문서 교환도 지난 7월 이후 끊긴 상태다. F1조직위는 계약서상 위약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을 제시했고, FOM은 1년치 개최권료(4300만 달러)를 요구한 뒤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약에 따라 계약을 위반하면 '2년치 개최권료+a'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조정은 있었다는 것이 F1 조직위의 설명이다.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F1 조직위는 계약상 마지막 대회인 내년 대회 신용장 개설 시점인 오는 11월 말을 전후로 FOM 측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FOM은 지난해 말에도 "F1 대회 조직위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최대한 위약금 규모를 줄이는 협상을 벌이고, 소송에도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F1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도 있고 국고지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내년 대회 개최는 어렵다"며 "위약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소송까지 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풍년일세” 남도의 특색이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청명한 날씨를 보인 14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서 한 농부가 노랑게 익은 벼를 콤바인을 이용해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세계적 디자인 브랜드 만든다



디자인비엔날레 오늘 개막
2015 국제디자인총회 열려
유명 디자이너 광주 총집결

광주를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고유의 디자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탄력을 받고 있다.

디자인과 지역산업을 접목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5일 개막한다 이어 '2015 국제디자인총회'가 잇따라 열려 디자인 도시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지역 디자인산업의 브랜드화'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행사 중 '광주지역 브랜드 업그레이드(Gwangju Branding)'전은 국내외 디자이너 9명이 지역 제조업체 10곳과 협업한 조명, 생활용품 등의 결과물 9점을 전시한다. 광주 디자인 브랜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2015 국제디자인총회(IDO)'는 광주를 디자인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문화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전남대에서 개최된다. 30여개국 디자인 전문가 3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다.

디자인 이론의 선구자 빅터 마굴린 시카고 일리노이대 명예교수, 체험 마케팅의 대가 번 슈미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사 프로그 디자인의 설립자 하르트무트 예술링거 등이 함께한다.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이끄는 국제디자인협의회(Ico-D),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세계실내건축가연맹

(IFI) 등 영향력 있는 주요 단체도 참여한 다.

이번 총회 주제는 '이음'(Design Connects)이다. 독립된 개념의 디자인을 넘어서 공간, 문화 등 각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디자인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는 17일 신진 디자이너 워크숍을 시작으로 19~20일에는 '디자인과 함께하는 미래' 등을 주제로 한 글로벌 디자인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토론, 분야별 세션, 전시, 도시문화 디자인 서밋, 국제 디자인 학술대회 등으로 이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유라시아 대장정 -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 기행 ▶18편

혁신도시 출퇴근길 뺑 뚕린다 ▶2편

한 땅에 두 아파트 시연은? ▶6편

임형주 광주 팜페라 콘서트 ▶16편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주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허성관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존중을”

광주시·전남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들 성명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초대원장 임용을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들이 14일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연구원 김수삼 이사장이 각계인사와 면담을 갖는 것은 허성관 후보자 임용 강

행을 위한 억지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시·도의회가 함께 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이사장이 직접 나서 구속력이 없다고 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용을 강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이날 성명 발표는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의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면담에 맞춰 이뤄졌다.

김 이사장과 조 의장은 이날 비공개 면담을 가졌고,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허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른 시간 안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김 이사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임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그(허 내정자)만한 사람이 없다. 이번주까지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심증을 굳힌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김 이사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가 설립된 6월말 이후 공식적인 인사를 하지 못해 고민 끝에 조 의장을 만났다”며 “임명과 관련한 생각은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후보자 임용 강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 여론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이날 조 의장 면담과 기자들을 만나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상이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빛이 되게
속해선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